

# ‘뜨거운 팬心’...첫 승 축포 쏘고, 축제의 장 펼쳐라

광주FC, 내일 오후 4시30분 인천UTD 상대 홈 개막전

### 제주戰 아쉬움 털고 화끈한 승리로 팬 성원 보답 다짐 지역 아동 1천1명 초청...스포츠 문화 체험의 장 제공 두촌쿠 1천개·F&B 시설·빵 페스티벌 등 이벤트 풍성



프로축구 광주FC가 올 시즌 홈 개막전에서 승리로 팬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선사한다.

광주는 7일 4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 2026 2라운드 홈 개막전을 치른다.

광주는 지난 1일 제주SK FC와의 원정 개막전에서 아쉽게 0-0으로 비겼다. 그러나 후반에서 전방까지 연계하는 축구와 공격적인 수비, 빠른 공격 전개를 보여주며 가능성을 남겼다.

특히, 광주는 제주전에서 드러난 가능성과 보완점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려 다가오는 홈 개막전에서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각오다.

수비에서는 광주 유스 출신 센터백 김용혁이 선발로 출전하며 데뷔전을 치렀고, 45분 동안 민상기와 함께 무실점 수비로 팀에 큰 힘이 됐다.

측면에서는 신장무가 적극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공격 침범 역할을 수행했으며, 전방에서는 문민서가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동계 훈련 기간 동안의 성과를 보여줬다.

이번 홈 개막전은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광주는 많은 홈 팬들 앞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두며 초반 상승 흐름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제주전 무실점의 안정감을 이어가면서 공격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광주는 상대 인천과의 최근 7차례 맞대결에서 3무 4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3월 18일 5대0 대승을 거둔 이후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

인천은 무고사와 제르소를 중심으로 이주용, 이명주 등 베테랑 자원과 박승호, 김건희 등 젊은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며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을 차지했다. 여기에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정용, 오후성, 정지인 등 알짜 선수들을 영입하며 K리그1에서의 경쟁력 또한 갖췄다.

다만, 인천은 FC서울과 지난 1라운드에서 1-2로 패하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으며, 광주는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 그리고 홈 팬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이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번 홈 개막전에는 광주센터병원 후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소속 아동 및 관계자 1천1명이 단체 관람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 아동들에게 프로축구 경기



광주FC 신장무가 지난 1일 열린 제주SK FC와의 원정 개막전에서 제주 미드필더 이탈리아와 공중 볼을 다투고 있다. <광주FC 제공>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한 즐거운 추억과 건강한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다양한 팬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했다.

장의 룰렛 이벤트 참여 시 두촌쿠(두바이 폰득쿠기) 1천개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경기 시작 전 동측 광장에서는 1대1 축구 매치업 '배틀 필드', 테이블 축구(서브사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광주시 스포츠 문화마실의 일환으로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전통 연회 공연과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가 펼쳐져 개막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푸드부스'를 신설해 먹거리 콘텐츠를 강화했으며, 기존 가판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CU 편의점과 공식 계약을 체결해 실내 매장 형태의 편의점 시스템을 도입해 경기 관람의 질을 높인다.

지역 제빵 업체 15곳이 참여한 '광주FC 빵 페스티벌'을 경기장 동측 3층 광장에서 열어 팬들의 만족도와 지역 상생까지 꾀한다.

하프타임에는 ▲LG 스탬바이미 TV ▲삼성 갤럭시탭 ▲LG 공기청정기 ▲다이슨 에어랩 등 전자제품을 포함한 대형 경품 추첨이 진행된다.

경기 중에는 문화 프로그램 '그림심 이벤트'가 운영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20명 내외의 참여자가 경기 당일 S석에서 경기 장면과 응원 분위기 등을 현장 스케치로 담아낼 예정이다.

광주가 인천과의 2026년 홈 개막전 승리를 통해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에게 기쁨을 안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기자

장애 넘어선 아름다운 도전...밀라노·코르티나동계 패럴림픽 내일 열전 개막

## 전남 방민자, 휠체어컬링 혼성단체 '금빛 도전'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동계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이 오는 7일 동계 올림픽 폐회식이 열린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개막해 10일간 열전에 들어간다.

한국은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휠체어컬링 5개 종목에 선수 20명을 포함 총 56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 20위권 진입에 도전한다.



휠체어컬링 혼성단체전에서 메달에 도전하는 방민자.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한국이 역대 동계 패럴림픽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안방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대회 당시 기록한 종합 16위(금1, 동2)다.

선수단 최고령 선수이자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출전하는 방민자(한전 KDN·전남도장애인체육회 컬링팀)는 휠체어컬링 혼성단체전(이현출·양희태·차진호·남봉광·방민자)에서 밴쿠버 2010 대회 은메달 이후, 16년 만에 역대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한다.

특히, 평창 2018 대회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쉽게 패배 메달을 놓친 방민자와 차진호는 한층 더 노련해진 팀워크로 메달 획득에 대한 기

대감을 키우고 있다.

또한 2022 베이징 대회 노메달 부진을 털고 재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대회에선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스타인 노르딕스키의 김윤지(BD H파라스)가 유력한 메달 후보로 '평창의 영광' 재현에 앞장선다.

김윤지는 2025 국제스키스노보드연맹(FIS) 노르딕 세계스키선수권대회 파라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스피리트 좌식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밀라노·코르티나 2026 기대주로

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패럴림픽 앞둔 올 시즌에는 무려 금메달 2개를 포함해 총 6개의 메달(금2·은3·동1)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 1월 독일 핀스테라우에서 열린 월드컵에서는 패럴림픽 레전드인 옥사나 마스터즈(미국)를 제치고 좌식 매스타트 금메달을 차지하며, 물오른 경기력을 과시했다.

이밖에 활강 종목 세계랭킹 3위인 알파인스키 최사라(현대이젤)도 메달권 진입을 노린다.

최사라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월드컵 시상대에 꾸준히 올랐다. 2023년에는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거머쥐며, 처음으로 월드컵 시상대 정상에 섰고 2024년에는 7개의 메달(금2·은2·동3)을 획득했으며, 2025년에는 무려 13개의 메달(금1·은6·동6)을 목에 걸었다.

한상민이 솔트레이크시티 2002 대회 알파인스키 남자 대회전 좌식 경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팀 코리아에게 동계 패럴림픽 첫 메달을 안겨준 종목에서 24년이 지나, 최사라가 한국 여성 패럴림픽원 최초로 역대 두 번째 파라알파인스키 메달 사냥에 나선다. /박희중기자



5일 열린 kt와의 연습경기에서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한 김태형이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김태형, 5선발 경쟁 청신호

연습경기 kt戰 150km 패스트볼 앞세워 2이닝 무실점 호투 '눈도장'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태형이 호투를 펼치며 다가오는 시즌 5선발 경쟁에 청신호를 밝혔다.

김태형은 5일 일본 오기나와 킨 야구장에서 열린 kt와의 연습경기에서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2이닝 2피안타 2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시속 150km에 이르는 패스트볼을 비롯해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했으며 총 투구수는 48개였다.

매 이닝 선형 주자를 내보냈지만 위기 관리 능력으로 실점 없이 임무를 마쳤다.

4회초 첫 타자에게 볼넷을 내준 뒤 삼진과 연속 범타로 아웃카운트 3개를 채웠다. 5회에는 투구 내용이 더욱 돋보였다. 수비 실책과 도루, 볼넷, 안타가 겹치며 무사 만루 위기를 맞았지만 삼진 하나와 외야 플라이 두 개로 이닝을 정리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지난달 24일 WBC 한국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2이닝 3피안타 4볼넷 1탈삼진 3실점(1자책)으로 흔들렸던 모습과 비교하면 한

층 안정된 투구였다.

2026 시즌에 5선발 진입을 노리는 김태형에게는 존재감을 보여준 등판이었다.

김태형의 패투와 함께 불펜진의 투구도 이어졌다.

두 번째 투수로 나선 홍민규가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김시훈과 조상우도 각각 1이닝 세 타자를 모두 범타 처리하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경기는 KIA의 2-5 패배로 끝났다.

KIA는 1회초 2점을 먼저 내줬고 6회 정해원의 1타점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했다. 그러나 7회 다시 실점했고, 곧바로 정현창의 안타로 1점을 좁혔지만 8회 추가로 2점을 허용하며 경기를 내줬다.

외국인 선발 올리는 2이닝 3피안타 1피홈런 1볼넷 1사구 1폭투 1보크로 2실점했다. 5번째 투수로 나선 성영탁은 1이닝 1실점, 8회 마운드에 오른 최지민은 1이닝 2실점했다.

연습경기 1승 3패를 기록 중인 KIA는 오는 6일 LG와 마지막 실전을 치른 뒤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주홍철기자

民·軍 협력 강화...지역사회 기여·사회 공헌 확대

## 광주시체육회, 육군특수전사령부 '맞손'

광주시체육회가 5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황금박주부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의 과학적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해 부대원 훈련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군 전투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민·군이 협력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광주시체육회 전문성을 활용한

과학적 체력관리 지원, 전투형 강군 육성의 과학화를 위한 체육 혁신정책 발굴, 체력측정 결과 분석을 통한 훈련 효과 정량적 평가 등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체력은 국가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며 체육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자산"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정예 전투력의 산실인 공수특전여단과 연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육 혁신정책 등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수득신여단 업무협약

2026. 3. 5 (목) 14:00 장소: 중회의실

